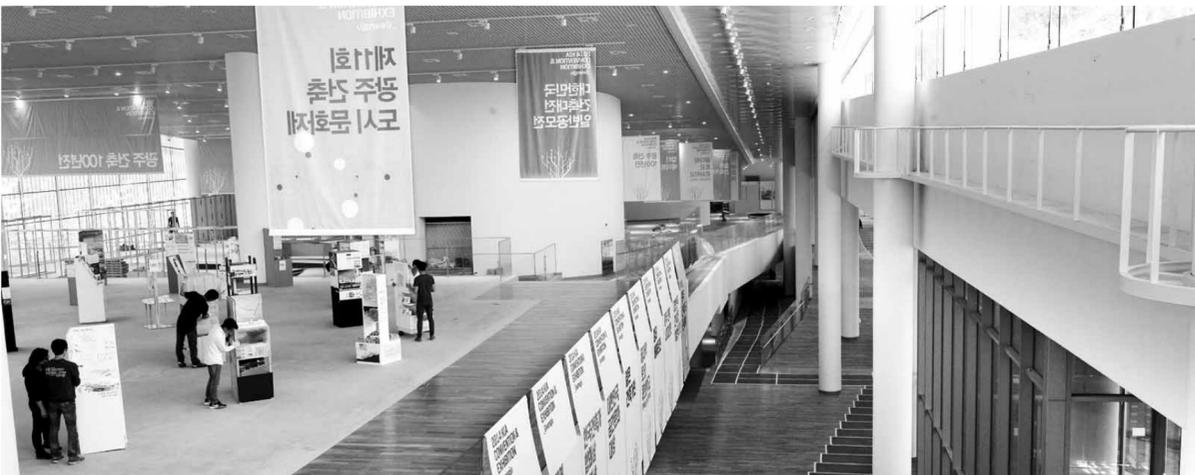


첫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가보니

'빛의 숲' 지하에도 통유리로 햇살 쏟아져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문화원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빛을 다양하게 활용한 건축기법이 인상적인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내년 정식 개관에 앞서 5일부터 9일까지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개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파트 높이 30층 규모 공연장·전시실 등 'Z' 동선 창틀 없는 유리판 300개 눈길...5~9일 '건축문화제'

"빛을 다루는 모든 건축적 요소들이 잘 녹아 있는 건축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주요 시설의 하나인 어린이문화원이 3일 베일을 벗었다.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 어린이 문화체험장인 어린이문화원은 지난 31일 공사가 완료됐다.

이날 언론에 첫 공개된 어린이문화원에서는 5일 개막하는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문화전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 뒤편에 있는 문화전당 주출입구를 통해 내려가자 뽀나무

와 꽃으로 단장된 아시아 문화광장이 눈길을 끌었다. 새로 지어진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등 문화전당의 주요 시설물들이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임을 실감케 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어린이 문화원은 아파트 높이로 30층 규모다. 주출입구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문화원에 들어서자 쪽 뻗은 전시실 풍경이 들어왔다. 이곳은 지하 2층에 해당했지만 양옆으로 설치된 통유리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하라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구조물과 빛의 요소가 어우러져

도록 설계해 빛이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의 말이 고개가 끄덕여졌다.

문화전당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창틀 없이 케이블에 유리를 고정하는 케이블 넷 방식이 도입됐다. 가로 2.5m, 세로 1.6m 크기의 대형 유리판 300여 개가 창틀 없이 케이블에 고정돼 있는 형태다.

어린이문화원은 측면에서 봤을 때 'Z'자 형태로 이어지도록 동선이 짜여 있다. 지하 2층에는 어린이공연장, 전시실, 기획전시실, 카페테리아 등이 위치해 있고, 가파르지 않은 경사를 따라 지하 1층에 상설전시실이 나타난다. 이동 통로는 나무바닥으로 마감돼 있었다.

지하 1층으로 올라가면 점차 도심 풍경이 드러난다. 특히 측면에 있는 대나무 정원의 모습이 대형 유리벽을 통해

비치면서 묘한 매력을 선사한다. 오른쪽에 전당 정원의 모습이 펼쳐지는 지상 1층에서는 전체적인 어린이문화원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문화원에서는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문화축제인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문화로 키우다(Cultivate)'를 주제로 열린다.

건축문화제 위원장을 맡은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빛을 교과서적으로 다룬 어린이문화원은 '빛의 숲'의 개념을 잘 살린 건축물"이라며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물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관련 축제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중 FTA 6일 중서 14차 협상

핵심 쟁점 일괄 타결 시도

양국 통상장관 수석대표로... APEC 회의 앞두고 급진전 주목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다.

양국 대표단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9~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열린다.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측에서 FTA 타결 희망 시점으로 접점을 때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 양국 대표단은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한국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온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

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이뤄졌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최초 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장도 타결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카드로 맞선 형국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 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고, 중국은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의 타결을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산업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중 FTA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연합뉴스

전남 귀농·귀촌 62%가 '농사 초보'

전발연 조사...50대 52%·준비기간 2년 소요 70%

전남 지역 귀농·귀촌인의 61.7%가 농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남발전연구원 김진이 연구위원과 오병기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 '리전인포'를 통해 전남 지역 귀농·귀촌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귀농이 89%, 귀촌이 11%의 비중을 보였고, 연령 비율은 50대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귀농·귀촌의 준비기간은 2년 이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거주-도시취업-고향귀농이 44.4%, 도시출생-도시취업-귀농이 34.6%, 농촌거주-도시취업-타향귀농이 2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을 귀농·귀촌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스스로의 노력'과 '본인의 고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36.4%로 가장 높

은 분포를 보였다. 귀농·귀촌 시 애로사항(5점 척도)은 마을 분위기가 3.12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3.11점, 여가 및 문화생활 3.03점 순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영농 기술 교육이 4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 경영이 3.93점, 농업 및 농촌정책 교육이 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남 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이수 경험 부족, 농사경험 및 기술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전남 지역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으로 귀농·귀촌 융복합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농업 중심에서 휴양 중심의 반귀농·반귀촌 유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5도2촌 마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여성리더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 현장형 교육 및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13개 시·군 "100원 택시 운행하겠다" 전남도 11곳 선정 내년부터 5000만원씩 지원

전남 17개 시·군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00원 택시' 공모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17개 시·군이 응모했다.

이 중 순천·나주·광양·고흥·구례·화순·장흥·강진·영암·함평·영광·완도·신안 등 13곳은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 100원을 받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양·곡성·보성·해남은 동일 읍·면을 벗어나면 거리에 따라 승객 1인당 1100원에서 4800원까지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 중 11개 시·군을 선정해 내년 예산 5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은 시·군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도는 교수, 교통 전문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3일 제안서와 시·군 공무원들의 설명 등을 토대로 심사한 뒤 14일 11개

시·군을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대상마을 선정·택시업체 확보 여부 등) 30점, 추진역량(예산확보·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 30점, 주민 수혜도 20점, 차별화된 홍보 20점 등이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지사 공약으로 주민들이 택시요금 100원을 주고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나머지 차액은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한다. 현재 보성군이 '행복택시'란 이름으로

주민복지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택시요금이 5000원에서 1만원가량 되는 데 승객 부담분인 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현재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한 달에 15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에 36개 마을로 대상을 확대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 매매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14

건 물 | 1,657㎡(3층)

토 지 | 2,076㎡

활용용도 | 요양원, 복지관, 유치원, 사무실

매 매 가 | 15억 6백 6십만원

(062) 940-0612

010-4662-4313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 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